

# 장흥새청무쌀 '아르미(Areumi)' 베트남 간다

### 도정 15일 이내 최고 품질의 쌀 기준 세심 관리 내달 10일 호치민 내 상설 판매장서 선보일 예정

장흥군은 25일 맑은 물 푸른 숲에서 재배된 장흥 브랜드 쌀 '아르미' 8톤을 베트남에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식에는 정중순 장흥군수와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김용경 대표 이사 및 생산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첫 수출길에 오른 아르미 쌀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농식품 수입

업체인 WINn FOOD SYSTEM(대표 김창민)에 전라남도 10대 브랜드 쌀 샘플을 발송해 현지 식당과 교민을 대상으로 시식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를 평가해 소포장된 1kg 장흥 아르미 쌀이 최종 선정됐다. 아르미 쌀 새청무(2017)는 전라남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으로, 장흥군에서는 '아르미'라는 브랜드로 생산되며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수도 90%

이상, 도정 15일 이내로 최고 품질의 쌀(탑 라이스) 기준으로 재배부터 생산까지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장흥군은 전라남도와 수출대행업체인 창대F&B,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수입국의 검역 관계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아르미 쌀은 6월 10일 개설되는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호치민)에 선보여질 계획이며, 상설 판매장은 호치민 중심가로 한인과 외국 주재원 및 상사원, 베트남 부유층이 밀집한 대형 쇼핑몰인 크레센트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



한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식량작물 분야의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장흥군 농협통합RPC와 함께 철저한 원료곡 관리와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베트남 WINn FOOD SYSTEM의 김창민 대표와 함께 아르미 쌀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 정수장, ICT기술 접목 최신 정수장 신축

해남 정수장이 ICT기술을 접목한 최신식 정수장으로 신축되면 단위 주민들에게 고품질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해남군은 국비 등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삼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해남정수장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신축되는 정수장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신 기술이 접목된 시설로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0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매월·매분기 실시되고 있는 검사결과 해남정수장 취수원인 삼산천은 수질등급 좋음(1b), 하천수질별 수질등급 1급수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 일부를 비롯한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 5,915세대에 하루 4000㎥ 규모의 최고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해남 정수장 전면 개량사업은 무중단 방식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정수장 신축시까지 수돗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해남읍을 비롯한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 노후상수관로 105km를 교체하는 해남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해남 상수도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수돗물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면단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 다음달 1일부터 속구간 정차시 단속구역 문자로 안내

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

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우리 군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사랑상품권 내달 14일 카드형 출시

### 완도군-한국조폐공사 업무 협약 체결...충전식 체크카드



완도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의 카드형인 '완도사랑카드'를 6월 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24일 한국조폐공사와 완도사랑카드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완도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로 50억 규모로 발행되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 앱(chak)을 통한 온라인과 관내 농·축협 창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조폐공사 앱을 통하여 카드 발급, 충전,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완도군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소비자에게는 지류 상품권과 같이 10% 할인과 소득 공제 30%의 혜택이 돌아간다.

## "알아야 면정(面政)도 한다" 장흥군 회진면, 직원 직무교육 실시



장흥군 회진면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19로 군 전체 공직자

대상 직무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회진면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정령도 향상을 위한 7대 적격 대상(공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불친절, 정보 유출, 선거운동 개입) 근절 교육과

더불어 계약 실무, 지출 실무, 세출예산 집행, 공문서 작성 실무 등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다뤘다. 교육을 진행한 김형재 회진면장은 "흔히 하는 말로 '알아야 면장(面長)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알아야 면정(面政)도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읍면 행정은 군 행정의 기초로서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이므로 법령과 지침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에 한국시화박물관 추가

진도군 민속문화예술특구에 한국시화박물관이 추가돼 10억원의 생산·소득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에 한국시화박물관이 추가된 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변경안이 통과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356,742㎡에서 361,890㎡로 확대되고 한국시화박물관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84억원에서 448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5월초에 개관한 한국시화박물관은 이지역 교수(경기대학교·시인)

가 폐교된 석교초등학교 죽림분교를 리모델링 후 시화 그림, 수석 등 2,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또 '진도의 역사와 예술, 문화와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8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문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지난 2013년 8월 지정된 이후 진도토요민속여행,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진도개페스티벌 등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특구를 운영해 왔다. 진도=조상용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